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미군 장교의 넘쳐도 모자란 한국사랑

3면 군관련 소식

이웃과 함께한 19헌병여단 창립 기념식
한바디

4, 5면 부대 탐방

1/72전차대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오픈카-바람과 함께 달린다

8면 안녕하세요

이지혜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17 항공여단 해단식

제 17 항공여단의 해단(Inactivation)식 및 제2다기능 항공여단으로의 제6기갑여단과 제 17 항공여단의 재편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6일 3지역대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즈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대신 장비능력의 향상을 통한 군의 효율성 제고와 한미간의 궁극적 통합이라는 목표들을 위해서 미8군이 착수한 군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이전까지 주한미군의 항공여단은 크게 3가지의 다른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모든 항공여단들은 미 2사단 예하 제2다기능 항공여단으로 통합되게 된다. 통합된 다기능 항공여단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즈에 위치할 것이며, 전 제6기갑여단의 사령관이었던 피터 포어맨 대령이 여단을 지휘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군들이 앞으로 이루어낼 공적과 성취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시간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병사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을 확신한다"고 캠프 험프리즈의 타이거 램프에 정렬한 장병들에게 말했다.

캠벨 중장에 이어 연설을 한 제 17 항공여단 사령관 데이비드 애브러모워즈 대령 또한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애브러모워즈 대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자신이 지휘했던 제 17 항공여



카투사 신문 이정우

행사를 위해서 캠프 험프리즈 타이거 램프 활주로에 집결한 장병들. 두 여단은 2사단 예하 제 2다기능 항공여단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의 해단식을 맞이한 소감을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6주전, 제17항공여단은 1544명의 사병들과 66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앞에 있는 본부중대소속 21명의 병사들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오늘이 바로 세 개로 나뉘져 있던 항공여단이 제2다기능 항공여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되는, 미 8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전 제6기갑여단의 사령관 피터 포어맨 대령은 "드디어 여단이 개편되어 다른 부대들과 병

합되었고 그 결과 모든 종류에 걸친 항공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늘부터 우리는 미 육군의 항공 부대로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선조, 기병대들이 그러했듯이 언제나 화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적들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의 검을 뽑아 들 것입니다."

일병 이정우

제 8 인사행정사령부 역사속으로



카투사 신문 심영식

리베라 주임원사와 해리스 대령에 의해 거두어진 8인사행정사령부의 깃발.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나이트 필드에서는 제 8 인사행정사령부의 해체식이 6월 15일 오전 거행되었다. 제 8인사행정사령부(이하 8인행사)는 1982년 1월 15

미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된 다른 미 육군 인사행정부대도 마찬가지로 2007년까지 해체, 통합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부중대, 516인사대대, 509인사대대

일에 미 8군 소속 여단으로 창설된 이후 해체식을 함으로써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미 육군 체제의 변화로 인해 각 미군 부대에서는 개편이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미 육군의 모든 인사행정부대가 해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주한

로 편성되어 있던 8인행사는 미 본토로부터 주한미군 병력을 지원 받아 필요한 부대로 배정하는 것부터, 장병들의 복지, 진급, 상훈, 사병 및 장교의 신상 기록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8인행사 윤봉구 여단선임병장은 "용산에 본부가 있으며, 각 지역별로 대대 및 파견대가 나가 있어 세계적 수준의 인사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라고 말했다. 8인행사에 소속되어 있던 본부중대는 8군본사 인사참모부 소속으로 재보직 되었으며, 516, 509 인사대대는 19전지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번 해체는 부대가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단 해체 후 그 기능에 따라 소속이 바뀌는 것이기에 때문에, 다른 부대로 전입되는 인원은 거의 없다.

양국 국가의 연주 및 기도로 시작된 이 행사는 8인행사의 깃발을 여단장 마 2면에 계속...

이클 해리스 대령, 같은 여단의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리베라 주임원사가 미 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에게 건네주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깃발 전달식이 끝난 후, 해리스 대령은 청중들에게 임무를 끝낸 소감을 밝혔다. 해리스 대령은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온 병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해체식을 위해 약 2주일 동안 준비했다고 말한 8인행사 본부중대 고경욱 상병은 행사를 끝낸 후 말했다.

"해체식을 준비하면서, 군생활의 대부분을 함께한 8인행사가 해체 된다는 막연했던 느낌이 점차 실감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미 8군 사령관인 캠벨 중장과 8인사행정사령부 사령관인 해리스 대령이 참관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정든 부대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행사 내내 아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인행사의 해체식이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 앞으로 남은 군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병 심영식



카투사 신문 최의진

6월 15일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채플에서 종교 안보 강연회가 열렸다.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 발발일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한 이번 강연회를 위해 제 2지역대장 강성룡 중령, 주한미군/유엔사 군종실장 사무엘 분 대령, 한국군지원단본부 군종장교 정태식 소령 그리고 청주 제일 감리교회 채강석 목사가 참가하여 용산지역대 카투사들과 같이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미군 장교의 넘쳐도 모자란 한국사랑



제공사진

마크 소로카 미175경리부여단장이 20일 용산 기지 내에서 가족들과 기념 촬영하며 미소짓고 있다.

낮선 지역만리 한국 땅에서 고된 군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인 남매를 입양해 키우는 벽안의 천사가 있어 한미 장병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미175경리 부여단장 마크 소로카 중령의 남다른 한국 사랑은 200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15년 넘게 생활한 너무나 한국적인 부인을 플로리다 휴가지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소로카 부여단장은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미175경리여단에 배치돼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이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데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렸다. 하지만 소로카 부부는 소박한 동지에서 한국인 남매를 2001년 입양하게 됐다.

"아내와 저는 주한미군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사회 복지 시설에 봉사 활동을 다니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남매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장래 애니메이션 작가를 꿈꾸는 누나 민정양과 정신과 의사가 꿈인 동생 병조군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입양됐다.

소로카 부부의 따뜻한 배려로 입양 전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남매는 "친부모와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용산 기지 미국인 학교에서 같은 또래 학생들과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있다"며 "특히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미국 음식과 우리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맛있게 해 주시는 엄마의 살가운 정에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사랑하며 4년을 한국에서 지낸 소로카 부여단장은 주한미군과 군무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부대 관련 계약과 계좌 개설 지원 등 모든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1년 더 연장 근무한다는 기쁜 소식도 접했다.

오이소박이 김치와 비빔밥, 잡채를 즐기며 특히 풍부한 한국 문화, 역사에 매료돼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됐다. 너무나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한국인 부인을 얻고 낮선 이국 땅에서, 힘든 군생활을 하면서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과란 눈의 천사' 소로카 부여단장. 한미 간에 크고 작은 현안과 사연이 많지만 이처럼 진정으로 한국인을 사랑하는 주한미군이 있어 한미동맹은 더욱 튼실하고 굳건히 지탱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 신문 이정우

6월 17일 용산기지에서 있었던 FUN RUN 행사에서 달리고 있는 참가자들. 이날 행사는 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군인가족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치뤄졌다.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과는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이며 전화번호는 723-4872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o.ho.kim@usfk.korea.army.mil이다.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벨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이세희
- 편집장
- 상병 김도호
- 기자
- 상병 최의진
- 일병 심영식
- 일병 이정우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 Gen.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 Col. Thomas E. Budzyna
- Command Information OIC
- Capt. Kone C. Faulkner
- Editor
- Cpl. Kim, Do-ho
- Staff Writers
- Cpl. Choi, Eui-jin
- Pfc. Shim, Yung-sik
- Pfc. Lee, Jung-woo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872.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do.ho.ki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4872

E-mail: do.ho.kim@usfk.korea.army.mil

이웃과 함께한 19 헌병여단 창립 기념식



카투사 신문 이정우

범죄 수사부 소속 장병이 아이들과 함께 공던지기 놀이를 즐기고 있다.

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50여 명의 여단 소속 장병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자리한 시민들은 이날 같이 운동을 하고 점심식사를 즐겼다. "이번 행사는 현재 군이 추진하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한 제19헌병여단 범죄 수사부 소속 브라이언 번 대위는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무언가 얻는 게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장병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행사의 큰 장점입니다만, 부대로 초청 받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자주 가져서 지역사회와 군이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가 외부인에게는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라서 처음 초대 받았을 때에는 낯선 느낌이 없지 않았습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또 다른 언어인 것처럼, 이내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욱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병 이정우

지난 18일 용산 미군기지에 위치한 커리어 필드 하우스 인근 제 7 번 야유회장에서 제 19 헌병여단 범죄 수사부 소속 미군과 카투사들은 여단 창립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다.

특유의 교대근무와 전국적인 배치로 인해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시간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헌병여단 소속 미군과 카투사들을 위해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부대소속 장병들 및 가족, 친지들만을 초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좋은이웃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자 인근의 살레시오 나눔의 집 소속 담당 교사들과 십여 명의 아이들도 부대로 초대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의 의미를 다시금 생

파티에서 갖가지 동물 및 꽃 모양의 풍선을 직접 만들어 어린이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제19헌병여단 범죄 수사부의 백성일 일병은 "주말을 반환해도 아깝지 않은 하루"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 모양의 풍선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즐겁기도 했지만 그것을 받아 든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번 행사에 자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를 받을 때마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살레시오 나눔의 집 원장 박선우 그레고리오 신부는 말했다. "미군부



카투사 신문 이정우

백성일 일병이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있다.

카투사 한마디

군생활중 기억에 남는 일



1/72전차대대 B중대
백승환 일병

포사격 훈련 중에 포를 쏘다가 손톱이 떨어져 나갔는데, 너무 열중했던 탓에 아픈 줄도 모르고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너무 아파서 그 때야 손톱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훈련 기간 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나머지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훈련을 마쳐서 기분이 좋았다.



1/72전차대대 본부중대
김재웅 상병

25마일 행군을 할 때였다. 미군들이 다리가 길어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죽기 살기로 힘을 내었는데 그만 코피가 터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빨리 걷는 것 같아서 동료들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1/72전차대대 인사과
박희철 상병

인사과의 특성상 미군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번 훈련기간 동안 부대 정비를 위해서 미군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영어 실력 향상도 기할 수 있었다.



1/72전차대대 A중대
원동욱 일병

훈련기간 동안 임무수행을 하던 중 타고 다녔던 브래들리 안에서 마신 매연과 덜덜거리는 떨림덕분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논산에서는 사격을 못했었는데, 이번 훈련에서 40발 만발을 기록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1/72 전차대대



무더위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몇 차례 시원한 비가 내린 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 사무실만 봐도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전국에 있는 카투사 여러분들 또한 몸관리에 신경써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하루에도 몇번씩 전투복 소매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기자는 6월 2번째 부대탐방지를 물색하였다. 바로 전 부대탐방에서 행정부대를 다녀온 뒤라 이번에는 전투부대쪽으로 눈을 돌려 2사단에서 주인공을 찾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연락이 닿은 2사단 1여단 1/72전차대대원들과 약속날짜를 잡았다. 캠프 케이시에 위치한 1/72전차대대를 향해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북으로 향한 기자는 대대 인사과에서 대대원들과 조우할 수 있었다.

1/72 전차대대는 1, 2 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을 포함 여러 전적을 남긴 유서 깊은 부대이다. 한국전 당시 홍천, 용산, 가평, 전투에서의 공로는 세 번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낙동강 전선에서의 활약은 두 번의 대한민국 대통령상과 우수 수행 깃발을 따게 되는 명예를 부대에 안겨 주었다. 한국전 이후 1965년 7월 1일에 2사단에 편입된 후 한국으로 재과전되어 현재까지도 캠프 케이시에 주둔하고 있다.

1/72 전차대대 인사과 선임병장 박희철 상병이 부대를 소개해주며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총 7개의 중대로 구성된 1/72전차대대는 기자가 지금까지 다녀본 부대탐방지 중 가장 많은 카투사들이 복무하고 있는 곳이다. 우선 모든 중대를 총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본부중대가 있으며 최근 실행된 재보직으로 인해 2/9 보병대대

에서 재배치되어 온 알파, 브라보 중대가 있고 전차 부대인 찰리, 델타 중대가 있다. 또 2공병대대에서 재편성되어 1/72전차대대로 온 공병 부대인 에코 중대, 본부중대의 공구보급병으로 편성되어 만들어진 폭스트롯 중대가 대대를 이루고 있었다.

2/9보병대대에서 1/72 전차대대로 재배치된 알파, 브라보 중대는 그 구성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 1/72 전차대대 알파 중대 2소대 백승환 일병이 보병중대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대대의 두 보병 중대는 각각 4개의 소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하에 무기과, 보급과 등 각 소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본부소대가 있으며 이 외에 1, 2, 3소대가 있습니다. 3개의 소대는 각각 알파 섹션, 브라보 섹션, 1분대, 2분대로 나뉘어 있는데 두개의 섹션에는 장갑차 운전수, 장갑차 사수, 분대장을 맡고 있는 브래들리 지휘관이 있고 1, 2분대에는 장갑차 뒤에 타고 있다가 유사시 출격하여 전투를 하는 보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병 중대원 같은 경우 훈련이 없는 평상 근무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장갑차를 정비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분대원들은 사격훈련 등의 보병훈련에 비중을 둔다고 한다.

전차중대인 찰리, 델타 중대는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주 화기로 삼고 있는 전차중대이다. 찰리 중대 선임병장 김영규 병장은 "찰리 중대는 본부소대 외에 3개의 소대로 이루어져 있다. 본부소대를 제외한 각 소대마다 전차가 4대씩 기본으로 있고 중대장과 중대 부관의 전차가 1, 2소대에 하나씩 있어 1, 2소대에는 전차가 5대, 3소대에는 전차를 4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찰리중대의 본부소대에는 여타 다른 본부소대들과 같이 화생방

과, 보급과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찰리 중대원들은 평소 근무 때는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정비하고 전술 훈련 및 총기 훈련을 한다고 한다.

장애물 제거 및 설치를 주 임무로 맡고 있는 공병 중대인 에코 중대는 장갑차 M113와 브래들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평상시 차량을 점검 및 보수 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하고 있다.

1/72 전차대대에서 가장 소수 인원의 카투사가 근무하고 있는 폭스트롯 중대는 본부중대 예하의 PLL 소대가 분리되어 나와 지금의 폭스트롯 중대가 된 것이다. 이

정비하고 체력적인 조건이 뛰어나야 하는 수색대의 특성상 강도 높은 PT를 행한다고 한다.

올 3월부터 한달 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백일병은 1/72전차대대가 그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훈련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3월 9일에 사격 훈련을 가서 4월 9일에 한달 간의 훈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훈련이 끝나면 하게되는 재정비를 2주에서 3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는 알파, 브라보 중대 같은 경우 브래들리 지휘관이 바뀌



제공사진

들 폭스트롯 중대원들의 임무는 대대 모터풀에서 차량의 운행기록, 기름 보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대를 총괄하는 역할의 본부중대의 예하에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수색소대가 있다. 그들은 평시 근무에 그들이 사용하는 브래들리를 점검 및

게 되는데, 적응훈련이라 하여 약 일주일간 새로운 지휘관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훈련을 중순쯤 부터 하게 됩니다. 사격 훈련만 모든 중대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여타 다른 자잘한 훈련은 보병 중대, 전차중대, 공병중대 각자의 형식으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제공사진



제공사진



제공사진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묻자 예코중대 본부소대 신중경 병장은 "훈련 첫날에는 가지고 간 장비들을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 훈련지로 이동하면서 오랜 시간 장갑차나 전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량 재정비를 하고 계획되어있는 훈련은 그 다음날부터 하게 된다"고 말하며 "사격훈련 같은 경우 보통 막사에서 취침을 하고 임무훈련이 있을시 야영을 하게 되는데 사격훈련 외의 모든 훈련은 야영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고된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본부중대 수색소대 김재웅 상병은 이에 이어 "우리 수색부대가 움직일 때는 다른 중대처럼 중대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임무수행을 할 때는 침낭만을 이용해서 잠을 잔다. 겨울에는 눈을 덮고 잔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전 훈련을 자주 하는 전투부대의 특성상 군생활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1/72전차대대였다. 브라보 중대 3소대 진석호 병장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4시간 동안 타고 가다 소변이 급해져 장갑차 안에 있던 1.5리터 병에다 해결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보통 장갑차 안에서 소변을 볼 때 사용하던 게토레이 병을 밖에 매달아 놓은 군장 안에 넣어 놓고 꺼내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또 알파 중대

선임병장 김태훈 상병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닷새에서 열흘 정도 산에서 자야 하는 임무 수행 중 씻지도 못하고 생활을 해야 했던 일,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훈련을 하며 땀이 나서 많이 끼입지도 못하고 추위 속에서 카투사들이나 미군 할 것 없이 밤에 떨면서 자던 일이 생각난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1/72 전차대대는 매주 목요일 각 중대별로 서전스 타임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 알파 중대 원동욱 일병은 "알파 중대는 보통 행군도 하고 총기를 정비한다. 또 부대 전술 이동 등의 수업을 받고 밖에 나가 실습하는 등 이 시간을 활용해 여러가지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찰리 중대 선임병장 김영규 병장은 "소대별로 화생방 상황을 가장해 그것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전차 안에서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수업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유명한 카투사들답게 1/72전차대대의 카투사들 또한 미군 상급자들에게 인정받으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백일병은 "우리 소대의 부사관들이 카투사들은 열악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항상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나 같은 경우 일등병인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을 맡는 지휘권을 주는 등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사진

찾은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심신이 피곤한 1/72 전차대대원들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박상병은 "예신 보육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 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 카투사와 미군들 중 자원자들을 뽑아 아이들 간식거리를 사주고 방문을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훈련이 많아지기 전에는 인근의 학교에 나가 영어 교육도 실시했었다며 여유가 생기면 다시 재개할 것이라 덧붙였다.

카투사 부대인원만 아흔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1/72 전차대대원들은 주로 중대 단위로 근무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대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중대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중대별로 축구, 농구 등의 시합을 주기적으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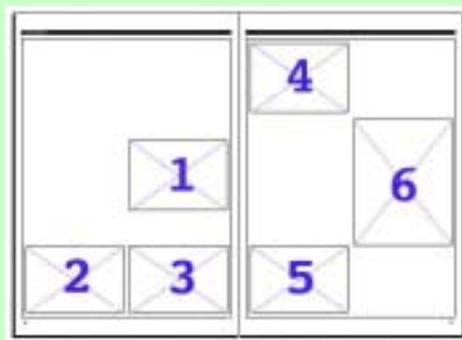
고 있었다.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과도 근무시간에는 물론 근무 외 시간에도 잘 어울리고 있었고 외박을 같이 나가 휴식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병, 공병, 전차부대가 합쳐진 1/72 전차대대는 2사단 1여단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전투부대로서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들의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최강의 전투부대원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

상병 최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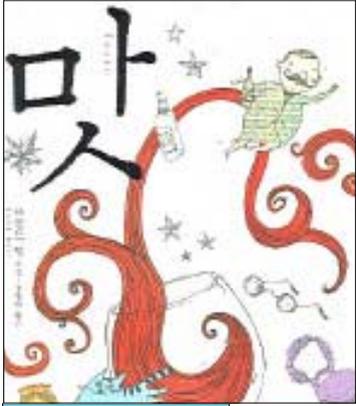


제공사진



1. 1/72전차대대 브라보 중대 선임병장 이지영 병장이 사격훈련 중 사격을 하고 있다.
2. M2A2 브래들리에 탑승중인 알파 중대 원동욱 일병의 모습.
3. 1/72전차대대 훈련지에서 야영중인 대대원들과 M2A2 브래들리의 모습.
4. 다목적 사격장에서 알파 중대 원동욱 일병이 M2A2 브래들리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5. 1/72전차대대의 거너리 훈련중 AH-64 아파치와 M2A2 브래들리 장갑차의 모습.
6. 거너리 훈련중 M2A2 브래들리 앞에서 브라보 중대 백승환 일병의 모습.



BESTSELLER

맛

로알드 달 / 강

'이야기의 귀재' 로알드 달의 새 소설집. 표제작 「맛」을 비롯해 그의 단편소설 중 최고의 평을 받고 있는 작품들을 모았다. 포도주 이름 알아맞히기 내기에 얽힌 절묘한 이야기 「맛」, 자신의 피아노 연주에 반응을 보이는 고양이 프란츠 리스트의 환생으로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권태기 중년 여성의 한나절 소동극 「정복왕 에드워드」 등 기발한 반전과 뛰어난 입담이 돋보이는 단편들을 엮었다.



WEBSITE

포토드래곤

www.photodragon.com

사진작가 박하선의 세계 오지 여행기. 이 사이트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여행지와는 차별화된 곳을 선정하여 여행하며 찍은 박하선씨만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사진과 여행지 소개, 여행하는 동안 느낀점이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티벳, 중국, 네팔, 터키, 페루, 필리핀 등을 여행한 기록들과 사진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10장

***Go fly a kite!**
나가 놀아 (꺼져!)가서 연이나 띄워.

fake : 가짜, 모조의

Dialogue

A: Sall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 got two tickets for a night movie.

B: Don't you think you are too young for me?

A: Come on. I am sixteen now.

B: Hey, kid. Why don't you go fly a kite?

A: 썰리, 이번주말에 약속 있어? 심야 영화 티켓이 두 장 있는데.

B: 나하고 데이트하기엔 너 너무 어려.

A: 그러지마 나도 이제 16살이야

B: 꼬마야, 나가 놀아라.

Key Phrases

kite : 연

fly a kite : 연을 띄우다

too young for A : A에게 너무 어린

kid : 어린아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빛난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그곳의 풍습을 따라라. 로마에서는 로마사람이 하듯 행동해라.

Dialogue

Dialogue

A: What happen to you? You look angry.

B: Yes, I am. I bought this diamond necklace for my girlfriend for a very low price.

A: So, is there something wrong?

B: Yes, it is not real, it's fake.

A: I see,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A: 왜 그래? 너 화난것같아.

B: 그래. 여자친구 주려고 싼값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어.

A: 그런데 뭐 잘못됐어?

B: 글썸 그게 가짜야.

A: 그랬구나. 빛난다고 모두금은 아니지.

A: When I was in the Philippines, I had to eat with my fingers without using a spoon and fork.

B: How did you manage it?

A: Well, I had to do that. You know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A: 내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맨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B: 어떻게 견뎠어?

A: 어쩔 수 없었지 뭐, 그 곳 풍습을 따라야지.

Key Phrases

Rome : 로마

Roman : 로마사람

manage : 일을 운영해나가다. 그럭저럭 버티다.

Key Phrases

glitter : 빛나다

necklace : 목걸이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Dialogue

Dad : Kate, I want you to be a doctor like me, okay?

Mom : Come on, Kate has to be a lawyer like me.

Jimmy : Oh, please, mom and dad. Don't you know that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아빠 : 지미야, 아빠처럼 의사가 되어야 한다. 알았지?

엄마: 무슨 소리에요, 지미는 나처럼 변호사가 되어 해요.

지미: 아빠엄마, 제발 부탁 이예요. 제 장래는 제가 선택 할게요.

Key Phrases

cook : 요리사

spoil : 망치다

broth : 고깃국

lawyer : 변호사

***Will you duck down please**
머리 좀 숙여 주세요.

Dialogue

A: Excuse me. Will you duck down a little please?

B: Pardon?

A: Will you duck down please? I can't see it.

B: Oh, I am sorry. I didn't know that.

A: 죄송한데 자세 좀 낮춰주세요.

B: 뭐라고요?

A: 자세 좀 낮춰주세요. 안보여요.

B: 아, 미안해요. 몰랐습니다.

Key Phrases

duck down : 숙이다. (뒷사람이 볼 수 있도록)

pardon? :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카투사 기고문

오픈카 - 바람과 함께 달린다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멋지다고 감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대개 그런 멋진 차들은 쿠페나 오픈카 등 소위 스포셜티 모델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리 잘 팔리지는 않지만, 현실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는 아마도 이런 모델일 것이다. 비록 자동차 판매의 주류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적당한 모델이기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모델을 한 두 종 갖춰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필자는 이 중 오픈카를 좋아하는데, 아마도 우리 나라에 드물고, 지붕을 열어 젖히고, 바람을 맞으면서 멋지게 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오픈카는 영어로는 컨버터블(Convertible), 불어로는 카브리올레(Cabriolet)라고 하며, 대개 미국 쪽에서 컨버터블을 유럽쪽에서는 카브리올레 혹은 줄여서 카브리올라는 말을 오픈카 이름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또 로드스터(Roadster)라는 이름도 쓰는데, -스파이더(Spider)도 같은 뜻이다. -원래 옆 창이 없는 스포티한 2인승 오픈카를 칭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별 구분 없이 쓴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는 양산되는 오픈카가 없다. 예전에 쌍용 칼리스타나 기아의 엘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단종되고 없는 상태다. 아마도 우리 나라 메이커에서 잘 팔리는 차 위주로 만들어 수익성을 높여야하고, 한국 메이커의 브랜드 이미지 역시 스포츠카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값싸고 실용적인 차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다.

요즘은 지붕이 달린 차가 일반적이어서 오픈카는 모델도 적고 값도 비싸지만,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시기에는 대개의 차들이 오픈카였다. 자동차가 마차나 수레를 바탕으로 엔진을 단 것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까지 대개의 차들이 오픈카였다가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지붕 달린 차가 보편화 되고, 50년대 이

차 할 경우 지붕 틈새에서 물이 새고, 주행시 바람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작 기술이 떨어진 당시 오픈카는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차츰 지붕이 있는 차가 등장한 것이다.

요즘의 오픈카에는 지붕의 재질에 따라 천으로 된 지붕인 소프트 탑, 가벼운 첼제나 플라스틱으로 된 하드 탑이 있다. 대개는 소프트 탑을 단 차가 많고, 벤츠 SLK와 같이 하드 탑을 단 차도 있다. 천으로 지붕을 얹으면 비나 눈에 약하고, 자동차 도난이 쉬울 것 같지만, 요즘의 경우 방수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도난 방지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오픈카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개 고정 지붕이 있는 쿠페를 변형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오픈카 지붕은 대량생산이 쉽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지붕 생산은 외부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아 엘란의 경우도 외부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며, 유명한 사브 9-3 컨버터블도 핀란드의 전문 제작 업체에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대개 오픈카는 일반 쿠페 모델에 비해 값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비록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멋진 오픈카.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오픈카 모델을 살펴본다.

벤츠 SL

페라리나 포르쉐와 같은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적인 오픈카로서는 가장 비싼 모델 중에 하나가 벤츠 SL이다. 2차대전 후 벤츠가 자동차 경주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스포츠카인 300SL이 1954년 데뷔하면서 벤츠 SL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벤츠 300SL은 위로 열리는 결빙도어로 유명한데, 요즘도 맥라렌 F1이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라고와 같은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문이다. 결빙도어를 단 것은 단순히 멋 때문만은 아니었다.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체육관 내부의 골조

2001년에 등장한 5세대 모델이다. 수많은 자동차 경주에서 활약한 초대 300SL은 레이싱카였는데, 현재 자동차 경주에서는 경주용으로 제작된 특수한 모델을 쓰는 관계로 벤츠 SL은 정통 스포츠카라기보다는 호화스러우면서 성능이 좋은 오픈카로 변화했다.

사브 9-3

사브는 Svenska Aeroplan Aktie-Bolaget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사브는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만들던 회사였다. 2차대전 이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항공기 제작 때의 경험을 살려 유선형 차체와 앞바퀴 굴림 방식을 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사브 최초의 컨버터블은 50년대에 만든 소네트라는 작은 스포츠카이지만, 6대 밖에 생산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모델은 85년 출시된 사브 900 컨버터블이다. 사브 900은 사브가 터보 엔진을 처음 사용한 사브 99터보를 바탕으로 전 모델보다 크기를 키워서 1978년 내놓은 모델이다. 사브 900 일반 모델은 1993년 컨버터블은 94년 2세대로 바뀌고, 98년 부분변경 하면서 이름을 9-3으로 바꾸게 된다. 사브는 독특한 성격의 자동차로 벤츠, BMW 보다는 다소 아래에 위치하면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이다. 고급 브랜드 자동차 판매 중 사브의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사브 컨버터블의 인기는 무척 좋아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고급 컨버터블 판매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다. 사브 9-3의 엔진은 직렬 4기통 2.0 DOHC인데 여기에 터보를 달아서 175마력, 210마력을 낸다. 작은 배기량에 DOHC와 터보를 조합하여 큰 출력을 얻는 차이다. 스포티하고, 안전하며 개성있는 스타일인 사브이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고 자국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어, 90년에 승용차 부문의 지분 50%를 GM에 매각하여 GM 산하에 있다. ■



제공사진

널리 알려진 벤츠사의 SL3 모델.

후에는 지붕이 달린 차가 주류가 되었다. 물론 지붕달린차가 거의 대부분인 요즘에야, 오픈카가 멋있다고 하지만, 초창기 오픈카의 경우 비가 올 경우 그다지 편하게 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최근의 차도 비가 오거나, 세차기에서 세

와 비슷한 구조의 차체를 사용하여 차체가 단단해지고 가벼워 졌지만, 출입문의 턱이 운전자의 팔꿈치만큼 높아져서 아예 문을 지붕까지 함께 열리도록 만든 것이다. 이후 1963년 2세대, 71년 3세대, 89년 4세대 모델이 나오고, 현행 모델은



회계감사과 상병 문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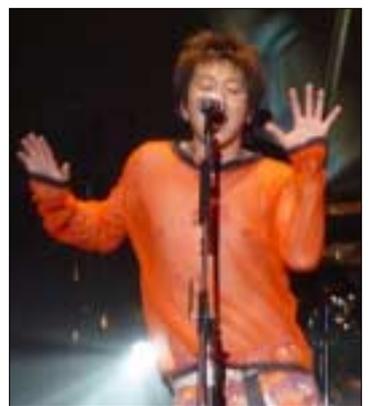
MOVIE

배트맨 비긴즈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주연: 크리스찬 베일

어린 브루스 웨인(크리스찬 베일)은 눈앞에서 부모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복수를 결심한 그는 멀리 동쪽에서 라스 알 굴이라 알려진, 위험하고 신비스러운 닌자 집단의 우두머리를 찾아 지도를 받는다. 세월이 흘러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 되어 범죄에 물든 고담 시티로 다시 돌아온다. 그는 마피아의 대부인 돈 팔코네, 의사이자 마약 판매인인 '허수아비' 조나단 크레인 등의 악당들을 상대하게 된다.



TOP CHARTS

사랑했나봐

윤도현

2. 같은 생각 / 신혜성
3. 가시 / Buzz
4. 천하무적 / MC 몽
5. 그녀에게 / UN
6. 살다가 / SG Wanna Be
7. 여자 / Big Mama
8. 사랑인걸 / 모세
9. 째짜라 / 장윤정
10.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 테이
11. 닳았잖아 / 이소은
12. 잘 지내나요 / 성시경
13. Hold me now / 소찬휘



완연한 여름이었다. 카투사 신문의 '안녕하세요'란을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하던 기자의 발걸음은 여름 특유의 '괴상스런 날씨' 때문에 썩 유쾌하지는 않았었다. 약속장소에 도착한 기자, 본지와와의 인터뷰에 응해주기로 한 이지혜씨를 만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에 응해주는 그녀의 활발한 에너지는 인터뷰 줄곧 기자에게 전해졌고, 인터뷰를 마칠 즈음에는 유쾌하지 않았던 기분이 그녀로 인해 말끔하게 사라진 기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의 향긋한 느낌을 독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자는 부대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다.

-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룹 '샷'에서 보컬을 맡았던 이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된 1집 앨범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네요.

- 솔로로서의 각오 및 목표

항상 신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1집이 나왔으니 가수 이지혜로서, 나만의 색깔이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솔로 가수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 솔로로 활동해서 힘든 점과 좋은 점

그룹 활동을 하다 보니, 의견 타협을 이루는 부분이 힘들 때가있죠. 한가지 예로, 저는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 다른 멤버들 전부가 자장면이 먹고싶으면 저는 비빔밥을 포기해야하는 그런 것이죠. (웃음) 하지만 인터뷰나 쇼 프로그램, 가요 프로그램을 뱃이서 하다가 혼자서 해야하니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돼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 다른 연예분야에 관심이 없는지

아직까지는 음악만하고 싶어요. 일단 1집을 내

고 가수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다른것들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가수로서의 애착이 있다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의 분야를 하다가 금새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것 보다는 제가 가수로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 카투사에 대한 이미지

카투사 분들은 우선은 영어를 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너도 좋으시고요. 친한 친구들이 카투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투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 만약 남자친구가 군인이라면?

도시락을 매일 싸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야외에 근무하고 있을 때 깜짝쇼를 준비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 카투사에게 한마디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일병 이정우

